

오늘도 아이들의 꿈을 어루만지며 미래를 그리고 계시는 유치원과 어린
이집 가족 여러분, 더 나은 정책과 이론적 정비를 위해 쉽 없이 노력하
고 계시는 여러 연구자님, 교수님 여러분,
안녕하십니까.

육아선진화포럼 공동대표 국회의원 임해규입니다.

육아선진화포럼 주제로 오늘,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자 했던
“만5세 무상교육 및 공통과정”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상의 문제로 8월
로 연기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부득이 연기를 결정하게 된 것
도 송구스러운 마당에, 급작스럽게 관련 내용을 전하느라 한 분 한 분
세심하게 챙겨드리지 못한 과오가 생겼습니다.

일정을 연기하게 된 것도 그렇거니와, 더욱이 매끄럽지 못한 소통으로
사전에 미처 연기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
드립니다. 본의 아닌 불찰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무어라 죄송한 마
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으나, 부디 아이를 바라볼 때의 그러한 너그
러움으로 지극히 헤아려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.

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. 더욱 충실한 내용과 공들
인 준비로 여러분들을 모실 것을 약속드리며, 죄송하고 또 고마운 만감
을 가슴속에 끌어안은 채 사과의 글을 여깁니다.

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군요.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, 어느 한
분도 예외 없이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2011년 7월 7일

육아선진화포럼 공동대표 국회의원 임해규 올림